

기준별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1. 기준별기령

구 분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별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60년 (100년)	40년(30년) (100년)
잣나무	60년	50년(40년)
리기다소나무	30년	25년(20년)
낙엽송	50년	30년(20년)
삼나무	50년	30년(30년)
편백	60년	40년(30년)
기타 침엽수	60년	40년(30년)
참나무류	60년	25년(20년)
포플러류	3년	3년
기타 활엽수	60년	40년(20년)
나. 특수용도기준별기령		
펄프, 갱목, 표고·영지·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기준별기령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별기령을 적용한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별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피해목·옻나무·약용류(「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약용류 중 약용을 목적으로 식재한 수목으로 한정한다) 또는 지장목의 벌채와 임지생산능력급수 I 급지부터 III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기준별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특수용도기준별기령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입목벌채허가 신청 시 별지 제53호서식의 목재사용계획서에 목재를 펄프, 갱목, 표고·영지·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 (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임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산림 안에 지역 여건상 생장이 빠른 임목(가슴높이지름 24센티미터 이상 임목이 50퍼센트 이상 분포)을 벌채하고자 할 경우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 (라) 이미 벌채된 구역과 연접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림사업 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거나 골라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①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 ②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2) 모두베기

-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남겨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목으로 남겨둘 수 있다.
 - 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립가로 선정된 자의 1개 벌채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골라베기

- (가)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나)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4) 모수작업

- (가) 모수작업은 형질이 우량한 임지로서 종자의 결실이 풍부하여 천연하종갱신이 확실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다) 모수는 1만제곱미터에 15~20본을 존치시키되, 형질이 우량하고 종

자가 비산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위치한 입목이어야 한다.

(5) 왜림작업

(가) 왜림작업은 참나무로서 맹아를 이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벌채는 입목의 생장휴지기에 실행한다.

(다) 벌채방법은 빗물 등으로 인한 썩음을 방지하고 맹아발생이 용이하도록 절단면을 남향으로 약간 기울게 한다.

(라) 그 밖에 수림대 존치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베기의 방법을 준용한다.

나.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1)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이하 "숙아베기"라 한다)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가) 숙아베기는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하거나 산림의 기능별 관리목표를 위해 필요한 임지에서 실행한다.

(나) 우량목 등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입목과 하층식생은 존치시켜 입목과 임지가 보호되도록 한다.

(2) 숙아베기사업의 시업기준

(가) 산림의 기능에 따른 목표 임상의 달성을 위해 목재생산림은 다음과 같이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숙아베기를 실행하도록 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 지름 40센티미터 미만 20센티미터 이상

3) 특용·소경재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미만

(나) 숙아베기를 실행한 후 임지에 남겨두는 입목본수의 기준(이하 "숙아베기 후 입목본수기준"이라 한다)등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수종갱신에 따른 모두베기는 제2호가목(2)(나)의 기준을 따른다.

(2) 불량림의 수종갱신

(가) 수종갱신은 수간이 심하게 굵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 실행한다.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V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한다.

(3) 유실수의 수종갱신

참나무 등 유실수의 노령목에 대한 갱신을 하고자 하거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수 있다.

라.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병해충·산불 또는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벌채는 피해의 확산방지 또는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굴취기준

가. 수목굴취 제한지역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 합계가 120점 이상인 지역
- (2) 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

나. 수목굴취 대상

- (1)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및 숙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또는 기준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 (2) 천연림: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입목
- (3) 관상수재배지: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입목
-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지역내의 입목

다. 굴취 및 복구 방법

- (1) 수목굴취는 입지 내 특정구역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없으며 고르게 분포하여야 한다.
- (2) 수목굴취는 존치목·미래목(이하 "존치목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존치목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3) 굴취적지 복구는 굴취 전 지형과 복구표면의 경사가 일치하도록 복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대상지에서 굴취를 하려는 경우 굴취 후 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너짐·땅밀림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수목굴취 요령, 적지복구 및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

가. 임산물 운반로의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임산물 운반로의 길이는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한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조림 그 밖의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산물 운반로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